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/ 산림청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총 2쪽
배포일시	2021. 10. 18.(월)	담당부서	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
담당과장	과장 한심희 (031-290-1161)	담 당 자	연구사 안찬훈(031-290-1163)

산림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 개발한다

-국립산림과학원, 친환경 미생물 소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-

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박현)은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환경정화 소재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전략을 모색하고자 10월 15일(금)에 「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산림 미생물 발굴 및 활용 전문가 초청세미나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세미나는 난분해성 고분자화합물의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적용 사례를 토대로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.

○ 특히 기존의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 소재로 미생물 효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.

□ 폴리염화비닐, 나일론, 폴리에틸렌, 플라스틱 등의 고분자물질 개발은 내구성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으로 생활에 편의를 주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어려워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.

○ 그중 친환경 소재인 미생물은 환경문제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. 이에 따라 산림미생물연구과에서는 산

림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발굴하여 난분해성 물질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 개발을 계획 중이다.

□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“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및 산업화 소재 개발에 관한 잠재력을 확인하였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산림 미생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화 기술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.”라고 전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파일 : 행사 관련 사진(별송)